광주 새 야구장 3만석 규모로 짓는다

방향은 동북동·473억 들여 주차장·진입도로

건립 계획 잠정 확정 … 이달중 턴키공사 발주

광주의 새 야구장이 지하 3층, 지상 3층의 3만석 규모로 건립된다. 야구장 방향은 선수와 관중이 편하게 경기를 펼치고 관람할 수 있는 동북동(東北東)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야구장 건립에 투입되는 994억원과는 별도로 4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외곽 주차장과 진출입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4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야구경기장 TF팀 회의'를 갖고 이르면 이달 안에 야구장 건립공사를 설계·시공 통합(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공사 발주와 관련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칠 방침이다.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새 야구장의 연면적은 5만5200㎡이며, 임동 119안전센터를 포함해 부지면적이 기존 무등경기장(8만5162㎡)에서 9만7193㎡로 늘었다.

논란이 됐던 야구장 방향은 선수 입장에서 유리하고 남쪽에 위한 아파트 단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북동으로 확정됐다. 부지 내에 1200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경기장 외곽 4곳에 주차장을 분산배치하기로 했으며, 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동 119안전센터에서 경신여고 방향 경전선 철도 간 도로도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장 외에 헬스장과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각종 운동시설, 전시관·박물관·외부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 소매점·음식점·스파 등 근린생활시설도 부지 내에 포함됐다. 관람석에는 스카이박스, 스포츠바, 음식조리공간(삼겹살존, 바비큐존 등)은 물론 수유실이나 파우더룸 등 여성전용공간과 탁아소 등 어린이공간 등이 배치된다.

서울 잠실구장(30m×10m)과 부산 사직구장(33m×11m)보다 큰 35m×15m 이상의 전광판을 설치, 관람객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야구장 내 전기시설은 LED나 태양광시설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중 사용될 기존 야구장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입찰 응모 시 기본설계 외에 1차분 실시설계(기존 주경기장 철거 및 기초공사)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박람회장 조경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친환경적인 조경시설로 꾸며진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전남도는 4일 박람회장 조경공사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박람회 주제에 맞게 32만1000㎡ 부지에 424억원을 투입, 친환경적인 장소로 조성하게 된다.

조직위는 특히 조경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최 시기(5월 12일~8월 12일·93일간)를 감안, 박람회장의 43%에 그늘을 마련해 체감 온도를 5도 가량 낮추도록 하는 온도 저감 방안과 풍력발전기, 태양광 파고라, 쏠라트리(Solar Tree·태양광을 이용한 휴대전화나 MP3, 노트북 등 충전기)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친환경적인 박람회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시화문화마을 둘러보는 孫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4일 광주시 북구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을 찾아 송광운 북구청장의 안내로 설치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손 대표는 이어 북구청에서 '시민토론마당'을 연 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재·보선 공천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3년 임기의 차기 위원장에 연임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를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7일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면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정복 농림 무안·나주 방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6일 마늘·양파 주산지인 무안과 봄배추 주산지인 나주를 방문, 주요 채소류 수급실태를 점검한다.

유 장관은 무안군 현경면 저온창고에 들러 겨울배추 저장실태를 살핀 다음 나주로 이동해 하우스 봄배추 생육상황을 둘러보고 현지에서 배추·양파 재배 농업인, 산지 유통인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 무공천' 텃밭 민심 달래기?

광주 찾은 손학규, 지역 언론사·국회의원과 간담회

최고위선 '대북 쌀지원 재개' 촉구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일 1박2일 일정으로 당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았다. 지난 1월 21일 광주, 28일 전남 방문에 이은 한 달여만의 호남행이다.

특히 이번 광주 방문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야권연대를 위해 텃밭인 순천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데다 '과학벨트 호남양보론'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광주 북구의 시화문화마을을 둘러보고 '희망대장정'의 하나로 시민토론마당을 연 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광주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5일 오전에는 시민사회단체 원로들과의 조찬간담회를 열어 지역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손 대표가 이처럼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잇따라 회동을 가진 것은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언론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과학벨트가 호남권으로 올 수 있다면 앞장서겠지만 현 구도상 올 수가 없고, 오더라도 '부스러기' 수준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럴 바엔 충청권에서 명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천 무공천 방침과 관련해서도 "'통큰 양보론'으로 야권연대를 이룬 뒤 강원도지사 선거에 집중해 이번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며 "MB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사 대표들은 순천 무공천 및 과학벨트 양보론과 관련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치는 것 아니냐"며 지역민심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앞서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협력과 대화, 평화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햇볕정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이라며 "인도적 지원이 북미·미중 관계 변화를 추동하는 남북관계 변화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다"며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설

전국 절반 차지하는 전남산 '친환경 먹을거리'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안전 먹을거리'의 절반이 전남산 친환경 농·축산물이라고 한다. 서울과 수도권 등지의 각급 학교에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과 쌀 납품량이 급증하는가 하면 구제역 '청정지대'를 유지해온 덕분에 소·돼지고기의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학교급식 시범사업 광역거점모델에 선정되면서 전국 최대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 269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했고, 407개 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에 친환경 쌀을 납품했다. 전남산 농·축산물이 고품질임에도 오랜 기간 푸대접을 받아온 현실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남의 친환경농업은 질적으로도 한 단계 발돋움했다. 전남의 유기·무농약 인증 면적이 전국 대비 50.6%나 차지한다는 게 이를 말해 준다. 전남도의 친환경 사업이 빛을 발하고 농민들의 피와 땀이 이룬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전남산 친환경 농·축산물이 학교나 보육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 소비자와 대형 유통센터, 재래시장 등지에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직거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엄격한 품질 및 인증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 구축 역시 중요하다. '청정지대=전남'이라는 이미지 또한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전남산 친환경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변변한 경제기반이 없는 전남에 친환경은 분명 미래를 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끊이지 않는 경찰 비리 끝이 어디 인가

경찰 비리는 백약(百藥)이 무효인 불치병인가.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전투경찰의 가혹행위가 횡행하며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간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패륜을 저지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경찰 비리가 잇달아 발생해서 하는 말이다.

형사팀장을 비롯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은 지난 3일 원룸에서 주부들과 화투도박을 하다 붙잡혔다. 또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고 단속을 봐준 여수경찰서 경찰 2명은 직위해제됐다. 개혁과 인사쇄신을 한다며 야단법석을 떠는 와중에 경찰의 비리가 연달아 터졌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야말로 경난(警亂)의 상황이다.

경찰 스스로의 개혁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끼리끼리 문화' 속에서는 개혁과 혁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입만 열면 개혁이다, 인사쇄신이다 하면서 온갖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비리는 끊이지 않는 현실이 입증하고 있다.

경찰 쇄신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력한 개혁기구부터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나 자체 감찰구조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불법과 부패에 둔감한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경찰개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가장 가깝게 접하는 실체적 공권력이다. 따라서 경찰이 신뢰를 잃으면 공권력의 권위도 기대할 수 없으며 법치(法治)와 사회질서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경찰의 손에만 맡겨선 안 된다.

송기진 광주은행장 연임 유력

후보 총 8명… 최승남·김경완씨 접수 안해

4일 광주은행 차기 행장 후보자 접수가 마감되면서 누가 행장으로 선임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우리금융 자회사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가 마감한 광주은행장 후보자 서류접수 결과 송기진 현 행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후보자 접수결과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호남출신의 최승남·김경완 우리은행 부행장은 접수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송기진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장 선임에 행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의 의중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접수하지 않은 것은 사전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송 행장은 이팔성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과 더불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과 지역밀착형 경영 등 호평을 받고 있어 조심스럽게 연임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차기 광주은행장은 행추위가 서류 심사와 오는 16일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선임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에 열리는 광주은행 주총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靑 "귀순 탈북자 4명 송환 않을 것"

"인도적 원칙따라 北 요구 거절"

정부는 4일 목선을 타고 월남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까지 모두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남하한 주민 31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망명 또는 귀순자를)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남북 관계는 당분간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휴전 협정에 따라 송환하게 돼 있는 공산군 포로도 가기 싫다고 한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가기 싫다는 민간인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돌려보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국제적인 망신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차라리 허리 부러지고 맙시다

'대한통운 인수' 포스코·롯데·CJ 3파전

신세계, 입찰의향서 제출 안해

올해 인수합병(M&A) 시장 최대어인 대한통운 인수전이 포스코와 롯데그룹, CJ그룹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된다. 전날 인수전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한 신세계는 입찰의향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롯데, CJ가 매각 주간사인 노무라증권 한국사무소에 대한통운 입찰의향서를 냈다.

롯데 관계자는 "대한통운의 물류 사업과 자산 등이 그룹의 주력사업인 유통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측은 "포스코 및 그룹사와 해외 동반 진출 등으로 대한통운도 글로벌 물류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계열사인 CJ GLS를 통해 물류와 택배 사업을 운영하는 CJ그룹도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 경쟁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라증권은 공동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과 입찰 의향을 밝힌 기업들에 대한통운의 상세 정보가 담긴 투자안내서(IM)를 보내고 이달 25일까지 예비입찰에 들어간다. 약 한달간 인수후보자에 대한 실사를 거쳐 5월13일까지 최종입찰을 받고 같은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7일 양해각서(MOU)을 교환하게 된다. 매각 주간사들은 6월 30일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매각 대상인 대한통운 지분은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각각 보유한 18.98%와 18.62% 등 총 37.6%이며, 매각 가격은 1조원 중반에서 2조원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晝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